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2009년 1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신명옥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02)2001-7621

E-mail: kjcl405@hanmail.net

Fax 02)730-1270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74호

언론의 國益 봉사는 法的의무이다

大韓言論 '09主題 언론과 국익

특별기고



金哲洙

· 학술원 회원
· 서울대 명예교수

국민화합 ·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法질서 위반 찬양은 선동죄 해당

요사이 정치가 말이 아니다. 국회에 서조차 타협정치를 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언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질타하기는 커녕 전투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하며 각 정당 대변인의 아전인수적 논평만 크게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양비론적 사실 보도에 그치지 말고 국가의 장래와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 정치인에게 충언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몇 개 신문은 논평을 통하여 여·야 정치인의 구태를 꾸짖고 있으나 많은 언론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왜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는지에 대한 심층보도는 보기 어렵다. FTA가 지난 참여정부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당시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다.

언론기관은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만 충족시키면 되고 정당정치에 시시비비를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언론은 국민 계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사실만 보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공적과업을 팽개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 언론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자기들에게 유익한 보도만 하고, 자기들의 정치성향에 맞지 않은 것은 보도를 거부하고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전·선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진보언론은 잃어버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미친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국가에 수많은 손해를 가져왔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는 '미국 소는 전부 광우병 소'로 둔갑시키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했고, 촛불시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분열을 가져왔다.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자 국민들이 썩 쇠고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아직도 광우병

위험만 강조하는 단체의 성명을 대서특필하는 언론도 있다.

이들은 출범한지 6개월도 안된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시에는 1년 밖에 안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격하면서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전력을 다 하여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것은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이기도 했다. 이들 언론은 아직도 전비를 뉘우치지 않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MB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FTA 비준준비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자기 편은 수난자요, 모함에 빠졌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반대 편은 독재자로 몰았다. 이러한 편파보도는 언론의 정도를 짓밟은 것이다. 이러한 편파적 보도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파 미디어와 종이 미디어끼리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언론은 결코 상업이 아니다. 상업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은 공적 책임을 지며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②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에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은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

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국익에 봉사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그 내용은 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이다. 언론은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도, 논평, 편집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언론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언론은 우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도와 편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미국 뉴욕 타임스 보도사건(1971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의 미국 인도차이나 개입 국방성 기밀문서 보도사건 : 편집자 주)과 같이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특권이나,

그것이 적국에 전달되어 국가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된다. 간첩을 비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적을 이롭게 해서는 안된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강제해산되는 것과 같이 언론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발간정지나 등록취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언론은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언론은 법교육에 협력하여야 하고 법질서 위반행위를 찬양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 범죄선동은 '범죄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할 수 있거나, 이미 생겨있는 결의를 조장할 것에 자극을 주는 행위'이며, 선동죄는 현실적 법익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집시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찬양·고무한 경우에는 선동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국회 건물 등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도 선동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 화합을 해쳐서는 안된다.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편향적인 보도로 국론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언비어를 전파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빈부간의 알력과 대립을 조장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전파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통한 댓글이 배우를 죽이고, 인터넷포털이 자살방을 운영하며 절도와 사기의 방법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언론은 여론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며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기에 가장 중요한 제 4의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악질언론이나 저질언론의 피해는 사전에 규제하기 힘들며 사후규제를 하게 된다. 사후규제조치가 선한 언론까지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언론은 책임을 다 하여야 하겠다. [4]

大韓言論 '09主題

'언론과 국익'을 말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새해 己丑年 화두를 '言論과 國益'이라 정하고 회보 '大韓言論'의 편집방향을 언론과 국익을 조명하는데 집중하려 한다. 지난 2008년 하반기는 언론의 좌표와 사명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사계 권위있는 인사들을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모셔 이분들의 탁견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우리의 언론이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논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었다. 어떤 분은 월 1회 나오는 '대한언론'을 좀 더 자주 낼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우리의 사명감이 한층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표방하는 '국익'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익이란 어느 정권이나 정파의 것이 될 수 없고 어느 지도자나 계층의 사상이나 가치 속에 예측될 수도 없다. 국익이란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 공약수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장소의 논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의 국익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일치할 수 없고 더 더욱 북한과 같을 수 없다.

국민을 갈라놓고 싸움을 부추기면서 정권의 안전을 노리는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들게 해서는 안된다. 지역을 볼모로 의석을 확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기네 패거리의 안위에만 여념이 없는 일부 집단의 수법도 온 국민 앞에 고발되어야 한다. 국민이 다수의 의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논리를 망각한채 코스모폴리탄적 여유를 부리고 있는 리더십도 도마위에 올라야 된다. 일전에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이 대안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민주당 집행부를 향해 일갈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는데,

발행인편지



조창화

· 본회 회장
· 발행인

다수당에서는 그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IMF 당시 저승사자처럼 날아온 IMF총재를 비롯한 구미의 전문가들이 부실기업에 정부가 금융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빨리 처분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국은 지금 상하 양원이 앞장서서 수백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들을 흉내 낼 것이 있고 흉내 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환기시켜야 한다.

기업과 노조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나라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기업 없는 노조는 성립될 수 없다. 전 세계가 공황의 늪 속에 빠져 들고 있는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자제와 희생을 감내하는 분수를 지켜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 정부에 각을 세워 분열과

반대를 일삼는다면 세계적 공황 속에서 살아남기를 열망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私益을 손해 보더라도 민족 공동체가 공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우리 언론은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감시의 기능은 언론의 책무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 말고도 국익은 도처에 널려있다. 손쉽게 실행할 수 있고 착안할 수 있는 국익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의 아소 수상은 일본의 경제가 완치되는데 3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우리 경제의 완치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적어도 이 엄청난 공황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안은 국익우선에 집중되어야 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올 한해 언론이 부각시키고 선도해 나가야 할 국익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게 600여명에 가까운 원로 언론인들의 인력이 있다. 이들을 총 동원한 국익 살리기의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것이다. ㉠

230여회우 歷代 최대성황

2008년 송년회 · 古稀축수 · 언론상 시상

대한언론인회 2008년 송년의 밤 행사를 겸한 제 17회 대한언론상 시상식 및 고회연이 12월 1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30여명의 회우들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조창화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탈북자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취재 보도한 조선일보 크로스 미디어팀에게 영예의 대한언론상을, 원로 방송인 최창봉 명예회우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시상에 이어, 고회를 맞은 구종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46명의 회우가 기념품 및 금일봉을 받았다. 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권성원 회장과 이윤수비뇨기와 원장이 회우들에 대한 전립선 무료 정밀검진과 건강강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를 받았다.

조창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엔 언론과 국익을 화두로 삼아 대한언론 회보 제작을 통해 국익발전에 도움이 되는 언론자세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명호 부회장 겸 대한언론상 심사위원장은 탈북자 실상을 취재 보도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온 조선일보 크로스 미디어팀과 전 동아방송·중앙방송국장과 MBC사장을 역임, 한 평생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최창봉 명예회우에게 5명의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언론상과 공로상을 수여기로 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언론상을 받은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의 이학준 기자는 "이번 탈북자 다큐멘터리

는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돌아보고 "취재 기지는 때로는 험난한 취재환경에서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선배의 말씀을 새기며 이번 상이 칭찬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 명예회우는 "대립과 분열 사회갈등을 조장해온 방송의 언론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방송이 막중한 책임을 느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시욱 회우는 고회 회우들을 대표해 "언론보고서를 내고 언론자유투쟁에 앞장서며 회우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대한언론인회가 우리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이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국가배례에 이어 2008년 작고한 6분의 회우들에 대한 묵념과 조 회장의 인사말 등으로 이어졌다. 조 회장은 나이 들어 느끼는 세월의 빠르기가 유수와 번개 같다고 운을 댔 뒤 회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 7월부터 회보제작을 강화하고 164명에 대한 전립선 무료검진과 건강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회장 취임 이후 지난 11개월을 회고, 내년엔 특히 회보 제작 등을 통해 언론과 국익관계를 아젠다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본회 발전을 꾀할 의지를 강하게 천명.

○...최창봉 명예회우는 언론공로상 수상소감에서 내 고향이 신의주인데 대한언론상을 받은 조선일보 취재팀이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 현지 취재모습을 전해 듣고 반가웠다며 좋은 선배 노릇도 못



언론상 · 공로상 수상자들, 최창봉 회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회 회우들의 기념촬영.

했는데 상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피력.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방송이 주류 신문에 흡집을 내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라며 방송보다 긴 역사를 가진 신문에 편향된 시각으로 마음대로 두들기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일갈. 흥남파의 봉선화 노래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을 하나되게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방송이 책임을 느껴 국민통합할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2008년 연말모임은 10명 좌석의 둥근 테이블 20개가 마련된 홀에 이른 시각부터 회우들이 들어서기 시작, 행사가 시작된 오후 5시엔 이미 만석을 이룬 상태. 방명록에 서명하고 행사장에 들렀다가 식사 전에 돌아간 분들을 포함한 이날 행사 참석 회우들은 모두 230여명이라고 사무국 관계자는 설명. 이같은 연말 모임 참석 인원은 1977년 본회 발족 이래 최다 기록이라고.

○...이혜복, 신우식, 제재형 전임 회

장은 물론 특히 원로 회우들이 대거 참석, 더욱 활기를 띠었다. 최고령인 김진섭(1918년생) 회우를 비롯, 김운진(1919년생), 문제안(1920년생) 회우 등이 나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신동식 회우가 홍일점으로, 그리고 박실 회우가 가장 먼저 행사장에 나와 회우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한언론상을 수상한 조선일보에서 변용식 편집인이 김창기 편집국장 등 국장급 간부들을 대거 대동하고 참석,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 입구에선 조 회장과 신동철, 문명호, 홍원기 부회장 등이 리셉션 라인에 서서 회우들을 반갑게 맞기도.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회우들만의 행사를 위해 외부 VIP를 초청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재정사정이지만 시장가액 6만원 상당의 남성 고급 화장품을 기념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 한 관계자는 기념품 증정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 ㉠

최최조편집위원(중부대 초빙교수)

폭력국회 ... 熱氣 뿜 신문 · 어정쩡한 TV보도



호천웅

- 본회 회우
- 전 KBS 취재주간
- 전 신성대 교수

여당의 단독 예산안 통과에 이은 FTA 상정으로 아쉬라장이 된 국회에서 강패, 강도, 망치, 전기톱, 소화기, 소방 호스 등이 날뛰고 사람이 다치고 부서 지고 깨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싸움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풀사나운 장면 에 등장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줄로 세우고 불기를 치든가 종아리를 때려 피를 흘리며 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법은 멀고 주먹을 가깝다고 온 나라에, 아니 온 세상에 대고 소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야당의 국회 상임위 회의장 점거가 계속되는 12월 20일과 21일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를 모니터했다.

통령의 책임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부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실업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어디 대통령만의 탓인가? 사회 불안과 원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닌가? 참 쉽게 접근하고 무책임하게 풀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지는 아이템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경영 문제를 비평하면서 재벌의 입장에서선 편과 방송이 심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기존 케이블 텔레비전의 선정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방송의 음란성과 선정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과업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그러나 그 방송사가 방영하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장면이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봐온 입장에서선 뻔뻔스럽고 겁 없는 제작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싸움질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방송사의 제작자들이 모두 비슷한 모습들로 보인다. 오십보 백보란 말이 있다. 또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헐뜯는 작태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사들은 저마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청률과 광고 수

지난 12월 18일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난장판 국회’는 차라리 ‘정치면’이 없거나 국회를 무시해버리는 신문을 찾아 보고 싶어 질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다. 신문을 펼쳐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라는 비아냥거리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특히 이런 저런 신문 가릴 것 없이 모든 신문의 톱 뉴스였고 나아가 2, 3면, 또는 4, 5면을 도배질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사실, 칼럼, 촌평 등의 단골 소재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국회, 그들만의 전쟁터’ ‘망가진 국회’ 같은 표제나 ‘난장판 국회, 국민 심판 두려워해야’ ‘망나니 국회... 망치 들고 싶은 건 국민이다’라는 사실 등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약과로 치부하고 견딜 만할지 모른다. 그러나 해머, 정, 전기톱, 물대포, 소화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먹살을 잡고 격렬하게 서로 치고 받 는 아쉬라장의 사진들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과연 입만 열면 ‘10만의 선풍’을 자처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벌인 일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같은 난장판



이병국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노 같은 것은 다음 문제다. 다만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일로 국민이나 언론인들보다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바로잡고 개선하겠다는 결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 보는 착잡함과 답답함 같은 것이라 하겠다.

사태를 주시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경제신문이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비이성적 파동’을 적어도 톱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고 사실도 한 두 쪽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경제신문의 특성상 그렇다고 말할 독자가 있었지만 반드시 그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97년 IMF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각종 스트레이트나 기획기사를 다루고 있다.

政黨입장 대변 한계 못벗어 不法사태 당위성 부각 인상

주말이어서인가, 국회 관련 보도는 비교적 조용했고 태평스러웠다.

20일 SBS는 선진국 의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폭력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했다. MBC는 국회 폭력사태가 연말마다 되풀이 된다고 비평했으나 선배 의원들도 그랬는데 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의원님도 생길 법한 내용이었다.

KBS는 야당의 상임위 회의장 점거 뉴스만 후반부에 한가롭게 전했다..

21일 SBS는 ‘이것이 쟁점’이란 타이틀로 왜 쟁점 법안을 반대하는가 하는 입장을 전하므로 폭력사태의 당위를 인정하는 걸로 비치기도 했다.

MBC와 KBS 등은 각 정당의 동향과 반응을 취재하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명을 들어 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불법 폭력은 간단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폭력 특집’이라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강패 의원들의 씹질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다음 선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20일 밤 9시 뉴스가 끝난 후 이어지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각한 실업문제를 다루면서 이명박 대

익에 목을 맨 방송현실에서 좀 더 자극적이고 보다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방송가에서도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을 몰아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바뀌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송의 프로그램 선택이 상업주의에 기초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방송사업 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하며 방송도 자유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도 국가 정책을 통한 조정과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

개그맨들의 말장난으로 도배되는 KBS나 공공방송을 자처하는 MBC의 주말 프로그램이나 삼각관계도 모자라 상식을 벗어난 불륜이 흥미유발의 요인으로 판을 치는 드라마도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흥미 위주로 사실을 다르게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해서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게 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보지 않는다는 역사 드라마도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방송의 가장 큰 배경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바른 방송을 할 때 방송의 힘이 배가되고 방송인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새해에는 힘 있는 국회나 정부 등 권

종합紙는 정치뉴스에 매몰 경제紙 현안 정책제안 눈길

을 겪고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대립하고, 각종 법안심의를 위한 상임위는 여전히 열리지 못한 채 ‘극한 대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정책을 결정하게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 복리 실현에 진력한다는 공통적인 가치 판단 아래 법안 하나 하나에 시시비비를 명확히 따지고 가려서 정책화하고 행정부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냉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풍들은 합리성과 실리를 찾아 토의하고 입법하기보다는 이념과 공론에 매몰된 대립자세로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는 ‘싸움판 국회’로 정평이 나있다.

국회의 ‘난장판’에 대한 신문 보도나 논평이 ‘선정적’이었다거나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의미조차 없다. 실제로 언론의 사명은 신문이나 TV를 가릴 것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그만이다. 더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답답한 경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참담함이나 분

경제신문 가운데 경쟁하며 서로 발전하고 있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를 보면 불황기일수록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두 신문이 12월에 톱 뉴스로 다룬 주제들은 대체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과 환율, 부동산 동향 그리고 경제성장 전망 등이었다. 경제신문들은 종합지들이 비생산적 정치뉴스에 매몰되고 있음을 지켜보며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 앞장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화되었다지만 우리 나라 경제신문의 위치는 경제 선진국의 경제지 만큼의 수준에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 때 한국 경제는 ‘허리 위’, 매일경제는 ‘허리 아래’를 보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만큼 한국경제는 비교적 무거운 정책적인 뉴스, 그리고 매일경제는 일상의 읽을거리가 많다는 비유였다. 한국 경제는 12월 들어 제호의 로고를 새로 바꾸고 스트레이트보다는 심층 분석에 중점을 두는 혁신을 단행했다. 두 경제신문의 이같은 보도 경쟁이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바란다. [4]

력층의 문제도 용기 있고 바르게 파헤치고 공익에 보탬이 되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되돌아보는 방송제작을 통해

강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4]

오늘과 내일

경제위기와 盧 前 대통령

사방을 둘러봐도 별 신통한 지형이 아니다. 협곡에 조그만 들판이 비좁게 들어앉았을 뿐 답답하다는 인상이다. 좌청룡 우백호는 커녕 앞 쪽으로 흐르는 강이라든지, 큰 시냇물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 실개천 정도 흐를지 모른다. 여하튼 왕후장상이 나올 지형은 아니었다. 거기다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생가라는 게 도무지 오종종했다. 옛날 동구 밖 삼거리에 오고 가는 객들의 속을 풀어주는 주막집, 그래 바로 그런 일자집 주막 모양과 흡사했다.

일단 눈에 띄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의 다른 집들과 비교해도 초라했다. 두가지 상상이 가능하다. 이런 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니 얼마나 한국이 차별없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실감할 수 있다는 게 첫째일 것이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난 게 아니고 산골짜기 빈촌에서 호랑이가 나온 셈이다.

그런데 생가 소개 게시판에는 호랑이가 아닌 백말 이야기가 나온다. 백마탄 왕자님 얘기는 비단 서양 동화만은 아닌 듯 싶다. 태몽을 그의 어머니 이순례 여사가 꾸었을 때 “엄청나게 큰 말뚝에 매여있는 백말의 고삐를 잡아 버지가 주면서 타고 가라고 했는데 말발굽 내딛는 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차다”라는 것이다. 백두산 정기를 타고 났다는 북한 김정일 탄생 신화와는 비교되지 않아도 역시 뭔가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 점은 대동소이하다.

도대체 그런 태몽들이 살기에도 바쁜 서민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승이 되었는지 역시 미스터리다.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왕 백도 절도 없는 농부 아버지 밑에서 오로지 공부를 잘해 사법고시에 합격한게 최상의 선택이었다면 그냥 소박함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더 그다웠을지 모른다. 하물며 봉화산 기슭에 지어놓은 저택과 생가와와는 너무 대조가 되었다.

하긴 퇴임 직전 국고 495억원을 들여 주변 개발을 하고 생가만도 9억 8000만원을 들여 새로 복원하며 사저에는 12억1000만원의 예산 배정, 이밖에 경호 및 경비 시설에 35억원을 투입, 근접 경호동과 직원 대기동들을 짓도록 했으니 조만간 별 차이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이는 엄연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사는 저택이 종합부동산세를 몇 만원 밖에 내지 않는다면 몇백만원씩 내야 하는 서울 강남의 35평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아무리 시골 땅이라지만 시세로 보아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혹시 퇴임 이후 수입이 없어 봐준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 그는 퇴임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막대한 봉급과 복지, 경호 혜택을 받는 처지다. 이 역시 형평차원에서 틀렸다. 하물며 자신이 만든 중부세 아닌가.

두 번째 상상은 이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노무현씨가 평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지가 관심사다. 단순한 어린이라면 그저 뛰어노는 정도

로 차별화한 세상에 눈길이 안갔을지 모르나 생가 소개판에 나와 있듯이 그를 여섯 살에 천자문을 외운 ‘노천재’로 불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를 원망 비슷한 마음 속에 되새기며 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결국 노무현씨가 재임중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고 서울 강남 주민과 서울대 출신을 증오하다시피한 이유가 그가 살던 고향 마을에 와보니 대중 집작이 가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차이’는 존재한다. 아무리 평준화 교육을 펼쳐도 세월 지나면 우등과 열등, 부자와 빈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자신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국회의원 당선, 대통령 당선 이후 까마득한 신분 처우를 받으며 일반 서민과 차별화한 생활을 즐겨오지 않았는가. 좌파 정권이 퍼주기에 급급했던 북한 사회도 평등하지 못한 것은 자본주의



민명문

· 본회 회우
· 헤럴드 경제신문 주필

상국 전 사장이 유임 청탁과 함께 건넸던 3000만원 수뢰 사건이다. 이 때도 노무현씨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좋은 학교 나온 출세한 분이 시골 농부 찾아가 청탁이나 한다는 식 야유로 끝내 남 사장을 한강에 투신 자살케 했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갔던 날도 형이니까 믿는다고 하기보다 좀 더 친인척 관

리에 신경썼어야 했다는 자책을 다소라도 비춰야 하지 않았을까.

구경꾼과 지근 거리에서 호흡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착해 1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을 뺀 다섯동안 이른바 ‘방문객과의 대화’를 갖는 진정한 이유는 또 뭘까. 좀 아뭏하다. 소탈하게 대중과 그냥 소통하고 싶어 그런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넓은 집에 일없이 들어앉아 책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처럼 자유롭게 헬스나 다니고 산책을 하고 그럴 처지가 못된다. 이따금 지인들과 골프 치러 지방 여행을 한다지만 그것도 노

특하면 ‘방문객과의 대화’서 정치적 발언 국가위업 ·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안돼

사회를 능가한다. 당원과 비당원, 평양 주민과 시골 주민과의 차이는 상상을 불허한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 봉하마을, 그의 어린 시절 추억 때문이라면 정말 착잡해지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첫 추위가 닥치기 1주일 전인 2008년 11월 28일에 찾은 봉하마을 인상기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다.

퇴임 후 하도 구경꾼이 많이 찾아서인지 동네에는 ‘봉하 뺑’을 만들어 파는 집도 보였다. 주인이 시식을 권해 먹다가 일행 중에 누군가 지금 노무현씨가 연설중이라는 소리에 황급히 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경꾼은 우리 말고 많지 않았다. 아마 취재진이 더 많았을지 모른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축대 위에서 그는 예의 겸손한 듯, 오만한 듯한 얼굴로 막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아직 구속 영새 전인 그의 형 노건평씨에 관해 물어본 것 같다. 잠시 곤란한 표정이너니 순식간에 제 얼굴로 되돌아 왔다.

요지는 언론이 이 문제에 너무 앞서 나간다. 조사는 받아야 하겠지만 자신은 형을 믿는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옛새 뒤인 지난 12월 4일 저녁 노건평씨의 구속으로 다 허무맹랑해졌다.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를 게 되었다. 며칠 뒤 일어날 사실에 관해 끝까지 언론 탓을 하며 형의 결백을 믿고 싶어했다. 형제니까 굳이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노건평씨는 이미 몇차례 전과가 있다.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 남

상 할 일은 못된다. 자칫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결론은 아직 60세 갓 넘은 나이에 좀이 쑤시니까 일거리 만든다는 게 그런 대화시간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묘해진다. 그 대화 시간에 곧잘 정치적 발언이 튀어 나오는 것이다. 기자들이 현장에 상시 배치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셈이다. 특히 지난 가을 MB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우회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 두드러진다. ‘10·4남북 정상회담’을 가리켜 ‘버림받은 선언’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전임 사장이 계약한 일은 후임 사장이 이행하는 줄 알았다”는 등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나라는 지금 미중유의 경제 위기 속으로 침몰해가고 있다. 유능해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이런 때 한껏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은 세태다. 내년 우리 경제가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에 의하면 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마저 의심한다. 자칫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선 누구도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지 불가측의 시대다. 오로지 믿는 것은 한국인이 지난 40여년간 보여준 성장 저력뿐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믿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많은 구조조정보다는 규모를 줄여 축소 경영을 해가며 어려운 시절을 참아내 언젠가 올

호황기에 대비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지난 98년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너무 내용 좋은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치워 외국 기업들에 큰 이익을 안겨준 쓰린 경험이 뒷받침한다. 그런 점에서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줄곧 현재 기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 표시를 하는 것에 공감한다. 이 기업이 꼭 형편이 좋아서가 아닐 것이다.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현재 구조조정이 얼마나 가계에 아픈 추억을 줄지 알기 때문이라리라 믿는다. 여기에는 노사 합심이 필요하다. 사회 화합은 더욱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라면 서로 참고 인내하며 도와야 하는 것이다. 기다리면 반드시 호기는 온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런 시기에 노무현씨가 계속 고향 마을에 앉아 낭비적 훈수를 두고 기자들이 이를 받아 적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말이 아니면 가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정권은 MB에게 넘어가 있다. 훈수 둔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다. 나라 들어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들도 종로로 가든, 을지로로 가든, 어떻게 좋은 길을 찾아가려 노력할 것이다. 시행착오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어차피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최근 그리스가 16세 소년 사살 사건과 관련, 전국적으로 시위 열풍에 말려있는 현상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의 열토당토 않은 미친소 시위 파동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이른바 거리 민주주의의 효시 국가나 다름 없다. 정치인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고 정책 결정과 참전 결정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도시 국가 형태로 오늘의 민주주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날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리 민주주의라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정치체제가 으뜸 아닐까. 인구 4,800만명의 세계 13대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해나갈 수 없다. 한국식 민주주의는 일단 뽑았으면 임기중에는 일하도록 맡겨두고 나중 선거로 결판짓는 게 낫다.

다행히 노무현씨가 2008년 12월 5일 대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무자녀 군중 앞 출현은 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가 바뀌어도 그랬으면 좋겠다. 선언 전날 형인 노건평씨 구속으로 사실 더 말할 입장도 아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가 다시 봉하마을을 축대 위에 할 일 없이 나타나 몇몇 구경꾼을 상대로 국정에 관해 간접 훈수를 두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반갑다. 봉하마을이 개인 정치 도장 또는 연설 연습장, 구경꾼 모이는 동물원이 아닌 바에야 전직 대통령이 함부로 나서 정치적으로 대중과 접촉하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고향 마을 관광 수입 증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 위업과 경쟁력 강화다. 차라리 대학 강단에 서든지,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 처럼 빈민구제 해비타트 운동이라도 하든지 남은 세월 활용 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

正統性외면한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이른바 國史교과서 논쟁은 논쟁이라기보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싸움이다. 양측 모두 主題과약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른바 진보)이 특정 의도를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과서의 교육대상은 미성년자들이다. 그리고 국사교육의 목표는 大韓民國 국민을 '생산' 하는데 있다.

後者부터 말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사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單位이다.

그런 중에도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에는 특별한 데가 있다. 바로 나라의 分斷이다. 그 分斷은 과거 민족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바 있고, 그리고 여전히 好戰的인 相對와의 갈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적 의미에서건, 특히 北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사교과서는 엄격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입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정통성과 정당성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相對적으로 다루자는 것은 대한민국

의 존립에 치명적인 害惡이 아닐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교과서에서 그 가치를 북한과 상대적으로, 혹은 상대이하적으로 다루자는 논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국민의 종다수가 된다면 이 나라는 공화국의 차수 변경 정도가 아니라 建國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거듭 말해서 교과서의 교육대상은 미성년자들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은 그야말로 미성년이다. 따라서 국사교육은 이들에게 이 사회의 主流的인 관점의 역사와 그 의미를 교육시켜 '국민'을 만드는 것이다. 主流的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역사관은 미상불 '당파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金 哲

· 본회 편집위원
· 국민대 초빙교수

'당파성'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는 數學교육과는 다르다. 물론 대한민국이 건국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문적 논쟁의 차원에서는 그 문제가 얼마든지 논의되어도 좋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에게 모든 것을, 특히 북한을 '상대적'으로 교육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를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것은 상황의 결정적 변화가 오기 전에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면면히 고집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독립모지도 역사를 기억하는 관광지가 될지 모른다.

게티스버그가 처했던 남북전쟁의 공동기억 장소가 되었듯이, 美國도 독립전쟁을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독립전쟁에는 자유라는 純正목표와 더불어 정치, 사회, 경

제적 구조가 얹혀져 있었다.

조지 워싱턴도 한 때 英國軍 장교를 지망했던 사람이다. 최근에야 佛獨 통합교과서가 나왔다. 그것은 佛獨화해와 EU의 성립 이후이다. 그 이전에 프랑스가 普佛전쟁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했었는지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시라크 前 대통령은 1차 대전 때 소대장을 살해해서 처형된 병사의 유족들이 이제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니 伸冤을 해달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의 대답은 "백년 전에도 프랑스는 프랑스였다"는 것이었다.

진보와 보수의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의 나토군사기구 탈퇴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오히려 보수인 사르코지가 다시 참가할지를 고려중이다.

필자는 국사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국사교과서만은 그 논쟁의 유탄을 맞아서 안된다. 그런데 보아하니 유탄 정도가 아니라 직격탄을 맞은 교과서가 돌아다니고, 한편에선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식이니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7]

溫故知新

‘대통령 라디오 연설’

KBS가 1라디오를 통해 대통령의 담화를 정규방송으로 편성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제목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 잘못이다. 이것은 그 취지로 봐서 '연설'이어서는 안되며, '담화'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연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스피치' (speech)를 개화기 일본의 선각자들이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불교경전에서 따온 말이다. 불교의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른바 '사자후' (獅子吼)에 가깝다. 연설은 요셋말로 바꾸면 웅변에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일본학자들은 '스피치' 외에도 많은 외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했다.

'필로소피(philosophy)'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철학' (哲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philosophy를 직역하면 '애지' (愛知)가 된다. 그러나 '애지학(愛知學)'이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중국에 있던 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그 때 중국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다. 일본에서 그렇게 쓰니, 중국 사람들도 이 말을 수입하여 지금껏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방송이라는 매체가 등장하였지만 당시에 방송이라는 말이 있었을 리 없다. 그래서 영어가 broadcast라고 하니 '널리 내 보낸다' 하여 '방송(放送)'이라고 번역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도 '방송'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에서는 그 의미를 따라 널리 퍼뜨린다고 하여 '광파' (廣播)라고 따로 번역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은 그 취지로 봐서 웅변이어서는 안된다. 다정한 친구와 담론을 하듯 현안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다. 그러므로 연설이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고정 프로그램의 제목을 '안녕하



박 현 태

· 본회 회우
· 전 국회의원
· 전 KBS사장

고정 프로그램의 제목도 담담하게 그저 '대통령과의 노변담화' 또는 '대통령의 노변담화'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노변담화'는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인 1933년 3월 12일 미국에서 시도되었다. 그 때는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겪은 '대공황의 시대'였다. 당시의 미국 대

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분위기가 다. 오래 전에 어떤 신문에서 한동안 연재했던 대담 기사 '차 한 잔을 마시며...'가 딱 어울리는 분위기이다.

방송 실무자들에게는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겠지만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KBS가 방송의 공정성, 공정성을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이 '노변담화'에 이어붙여 각 원내 교섭단체의 장들을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킨다는 데 이는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여타 정치인과는 그 위상이 다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친교도 없고 그 측근 세력들과도 안면이 없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선거 때도 아닌데 어찌 대통령을 여타 정당의 대표들과 1대 1로 다루는가. 이것은 방송 실무자들의 단견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다.

나는 이른바 '촛불 데모'가 절정이던 2008년 여름 <천박한 국민, 천박한 정치, 천박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 책 속에서 대통령은 일부터 분장할 필요도 없고 카메라의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는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고정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나는 이 책을 청와대에 보낸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측근 누구에게도 보낸 일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제안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가 있어 이 방송이 시작된 것을 보고 나는 내 생각이 자전거 헛바퀴 돌리는 식의 헛발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 [7]

‘노변담화’로 命名하는게 옳아 政黨대표와 同格취급도 잘못

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 어울리지 않는다. 어쨌든 그전에 많이 들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와 같은 가벼운 인사를 풍기는 것은 영 적당치가 않다. 차라리 나는 '안녕하십니까'도 빼고, '대통령입니다'도 빼고, '어서 오십시오, 얘기 좀 하십시오' 또는 '차 한 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통령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 공황극복의 방책으로 제시한 이른바 '뉴딜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이 아닌 쌍방향적 '노변담화'를 시작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노변담화의 원제는 'fireside chat'였다. chat지 speech가 아니었다. chat는 답소하다, 잡담하다는 의미이다. 차를 함께 마시면서, 술

CO₂ 다이어트가 지구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도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린 당신, 이제부터 CO₂ 다이어트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에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CO₂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신의 현명한 선택 -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남동발전이 함께 합니다.

오늘은 CO₂ 다이어트 실천하는 날

- AM 7:00** 비누칠할 때 샤워기를 잠시 잠급니다
- AM 8:30** 자가용 대신 BMW 운동에 참여합니다
버스(B), 지하철(M), 걷기(W)를 즐기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 AM 9:30**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종이컵, 비닐봉지 사용은 환경호르몬과 쓰레기를 늘리는 주범입니다
- PM 2:00** 적정 실내 난방온도를 유지합니다
난방온도를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₂가 줄어듭니다.
- PM 4:00**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계단을 이용하면 내 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PM 6:00** 녹색 소비에 동참합니다
환경인증제품과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 PM 10:00**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100만 가정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플러그만 뽑아도 연간 15만 톤의 CO₂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 KOREA SOUTH-EAST POWER CO.

취재 備忘錄

울진 · 삼척 무장共匪 추적기

1968년 11월 3일 새벽 전화 벨소리가 단잠을 깨웠다. 전화기를 든 순간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여보 박 기자 잠을 깨워 미안합니다만 지금 울진 삼척지구에 북괴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아군과 교전 중이니 빨리 현장으로 가시오”하는 취재 지시였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MBC 보도국 박근숙 부국장이었다.

당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동해에서 울진까지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다.

평소 잘 아는 서울신문 지국장인 윤재극씨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자, 지프차를 내주었다. 험준하고 위험한 태백산 허리의 2차선 비포장 도로를 굽이굽이 곡예운전을 반복하면서 정신없이 달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공비침투 현장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상황취재를 한후 지서로 달려갔다. 치안국에 출입하는 기자라고 위장했다. 지서장은 오늘 새벽 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는 외판마을 전모씨 등 3명의 주민과 우체부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산으로 도주했다고 분노를 토했다.

나는 기사송고를 하기 위해 울진 시내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우체국에는 기자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마감시간에 쫓긴 기자들의 송고 현장은 마치 경매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울진간 시외전화 회선이 부족한 데다 심한 잡음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야 상대방이 겨우 알아 들을 수 있었다. 기라성같은 일간지 기자들이 온갖 고생을 해가며 취재한 내용을 귀동냥하여 종합적인 취재를 할 수 있었다. 행운이었다.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국에 첫 송고를 했다.

나는 다시 울진지구 공비토벌 소탕 작전 상황실로 달려갔다. 북쪽으로 도주하는 무장공비를 따라 지금의 태백시인 장성경찰서 상황실로 취재진도 옮겨갔다.

공비 소탕작전은 11월 3일 시작 1개월이 지나는 동안 삼척, 평창, 정선, 강릉지역에서 군경 및 향토예비군의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 험준한 산악지역의 지형지물에 익숙한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 무장공비 통과예상지점에 매복하는 작전과 주민 신고정신이 합쳐져 큰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대간첩작전본부는 26일 군 작전중에 무장공비 정동춘(당시 나이 24세)을 생포했는데, 정동춘은 울진 삼척지구 침투공비는 모두 120명이며 15명을 1개조로 하여 8개조로 편성했다고 밝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0일 새벽 강릉경찰서 상황실에서 상



박명근

· 본회 회우
· 본회 복지기금 관리위원장

깜깜했다. 나는 자리를 뜨는 스님들을 원망스럽고 야속스러운 눈으로 주시하면서 뒤따라 가기 시작했다.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옛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님 스님, 혹시 해병대 하사관 학교... 하는 순간 스님은 뒤돌아 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기억력이 무척 좋습니다 하며 반겼다.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마이크를 치켜 올리자 따라 오라는 손짓을 하며 주위를 살피더니 쓴살같이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1968년 11월 29일 밤 9시 30분경 공비 7명이 들어닥쳐 총으로 위협, 저녁밥

가량 답는데 성공했다. 부상병을 부축하며 하산하다가 위조지폐 몇장을 주워 신고하기도 했다. 긴장이 차츰 풀리자 배가 몹시 고와왔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마침 독가촌 추녀말에 매달아 놓은 종자 옥수수 몇 개를 입에 넣어 불려서 씹어먹고 개울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 강릉 MBC에 돌아와 녹음테이프를 방송부에 넘겨주고 기사를 작성, 서울 MBC 보도국에 송고했다. 데스크는 몹시 흥분했는지 박근숙 부국장이 전화를 연결했다. “박기자, 참 수고 많았소.” 칭찬이 내포된 격려였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고생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1290 KHZ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시켰다. 드디어 저녁 7시 MBC 뉴스의 광장시보가 울렸다. 무장공비 00작전 지구에서 박명근 기자의 보도...(총성과 폭파음이 울리는 격전의 현장을 백으로 깔았다.)... 아나운서의 보도에 이어 무장공비 잔당을 쫓고 있는 우리 합동수색대는 이 교전에서 0명을 사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상원사에서 무장공비의 만행을 담은 생생한 녹음이 전과를 타고 전국에 메아리쳤다.

대간첩작전본부는 12월 21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소금강 뒷산에서 4명을 사살함으로써 작전 52일만에 120명 침투 무장공비중 정동춘 등 생포 5명, 고동운 김익풍 등 2명이 자수했고, 113명을 사살함으로써 작전이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취재기간 동안 나는 빈약한 기동력, 기자 지원없는 악조건 속에서 타 경쟁사보다 앞질러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하며 그 때를 지금 돌이켜 보면 울진 삼척 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기자라는 매력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게 한 동기가 됐다. 펜을 놓으면서 그 동안 나를 도와준 선배, 동료 모든 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현장증언 · 격전총성 생생히 녹음보도

보가 날아왔다. 찬바람이 몰아친 새벽 식사도 못한채 대관령을 넘어 평창군 진부면 월정리 상원사로 향했다.

월정사 진입로 입구까지 왔으나 교량이 붕괴되어 도로로 12km를 걷기 시작했다. 상원사에 도착할 무렵 요란한 총성과 포탄이 터지는 등 치열한 격전이 시작되었다.

상원사에 도착한 기자들은 월용스님 등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맨 앞자리에 자리잡은 나는 마이크를 스님 앞에 바싹대는 순간 스님은 기자회견을 거절했다. 기자들은 나 때문에 취재에 방해가 된다며 마이크를 치우라는 고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는 수 없이 포기했다. 무장공비는 라디오를 휴대하고 있기에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회전이 끝나자 기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앞이

을 지어먹은 다음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이평능승이란 보살을 산기슭에 끌고가 노끈으로 목을 매어 죽이고 충남에서 재수공부하러 상원사에 온 최대규(당시 21세)군을 짐꾼으로 강제 납치, 식량과 옷가지를 약탈해 도주했다는 만행을 녹음기에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 나는 특종, 특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교전은 여전히 치열했다. 나는 순간 격전의 총성도 녹음기에 담아야겠다는 욕심이 발동했다.

총탄이 날아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발 1,030m인 중봉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이 들것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다. 한참 올라가는데 교전중이던 수색대원이 위험하며 통제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마이크를 높이 올려 생생한 격전 녹음을 7분

전립선검사 회우들 대거 참여

강추위속 164명 초음파검진등 받아

조물주가 남성에게 준 20g의 비밀 ‘전립선을 아십니까?’ 이 말은 한국전립선관리협회가 내놓은 책자의 제목이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와 대한언론인회가 공동주관한 전립선 건강 강좌와 무료 진료행사가 구랍 6일 오후 12도의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재단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 날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된 행사는 12시 반까지 진행돼 모두 164명의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채혈과 함께 초음파 진단을 받고 현장에서 권성원 한국전립선관리협회장 겸 강남차병원 비뇨기와 전문의와 김세철 중앙대학교 의료원 원장이며 중앙의대 부총장, 대한언

론인회 회우들에게 매월 한 차례씩 건강강좌를 열고 있는 이윤수 박사 등 모두 10여명의 비뇨기와 전문의들로부터 건강 강좌에 이어 문진 등 진료를 받았다.

이 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권성원 전립선관리협회장은 “최초로 언론인 단체 회우들에게 별인 진료행사라서 참가한 전문의들이 긴장을 많이 했지만 역시 언론인들이라서 그런지 협조를 많이 해 줘 무사히 행사를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진에 참가했던 한국일보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냈던 박 실 회우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창화 회장에게 이런 바람직한 행사를 연데 대해 감사한다며 “얼마 전에 30만원을

주고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런 행사야말로 모든 회우들에게 실질적으로 30만원씩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출신의 성재삼 회우는 “이 행사야말로 노년기에 있는 회우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우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11월에 신입회원이 된 KBS의 강명수 회우는 “대한언론인회에 가입하자마자 이런 뜻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회우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언론인회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출신의 김준하 회우는 “진료 결과 전문의로부터



채혈하는 회우들.



회우들이 전립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40대의 전립선보다도 더 건강하다는 예길 들었다며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출신의 김병무 회우는 “회장이 회우들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 참 거룩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

냈으며, 이 행사에 참가한 회우들도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행사라면서 의료진과 대한언론인회 집행부에 만족스런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진료실을 나섰다.☞ (대한언론인회 이보길)

現代史현장 증언하는 영원한 사진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

회우초대석

李 命 同

·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 출판영업국장
· 대한민국 사진전 심사위원
· 월간 <사진 예술>고문

인터뷰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 · 칼럼리스트)

“우리 나라 보도사진의 개척자” “격동의 현대사를 사진으로 기록한 포토저널리스트” “한국 최초의 사진평론가”.

대한언론인회 원로 회우 李命同 선생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다.

지난 12월 10일 인터뷰 약속시간 30분 앞당겨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나와 계신다. 약속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 1920년 12월 2일생이니 올해가 卒壽. 세월이 비껴간 듯 건강하고 꼬장꼬장한 모습이다.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투철한 기자정신,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열정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보도사진 개척자의 대쪽같은 성품이 삶에 녹아 있다.

“이제는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졌다”며 인터뷰 자료와 사진집, 저서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를 챙겨온 꼼꼼함도 엿보인다. 사진 이론서이자 자서전 격인 저서의 제목에는 “기자는 기자이어야 하고,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지론이 함축돼 있다.

보도사진의 살아있는 전설

이명동 원로 회우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카메라로 기록한 역사의 현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57년 장충단공원 야당 집회 때 단상으로 몰려든 정치강패들을 검도 없이 카메라에 담아 정치강패 유자광을 구속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4·19혁명 때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돌격하던 학생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진을 목숨 걸고 찍었다.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4·19 민주혁명을 기록한 그의 보도사진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가 찍은 사진은 4·19혁명 기념우표에 새겨졌고, 특종 사진들로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다.

두루마기를 입은 백범 金九 선생을 경교장 앞 뜰에서 찍은 사흘 뒤 암살당했고, 1956년 한강 백사장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뒤 촬영한 申翼熙 선생도 세 시간 뒤 호남선 열차 안에서 사망하여 마지막 사진으로 남았다.

수많은 보도 사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월과 徐珉濤(1903~1974)선생의 옥중 사진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고재욱 주필이 1년이 걸려도 좋으니 옥중사진을 찍어 오라는 지시를 내렸지요.” 서민호 민의원(지금의 국회의원)은 1952년 4월 24일 지방의회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전남 순천을 방문했다. 그 날 식사 도중 암살 기도차 광주에서 온 서창선 대위를 호신용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 의

원은 살인혐의로 구속됐으나 국회가 정당방위를 내세워 석방시켰다.

내각제 개헌에 앞장섰던 서 의원은 자유당 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그 해 5월 25일 선포된 계엄령으로 다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명동 기자는 서 의원의 사위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라이카 카메라를 가슴에 숨기고 서 의원 장남 등과 함께 면회를 갔다.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기침을 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며 카메라 셔터를 4번 눌렀다. 1월 5일 흑한 속에서도 땀이 비 오듯 솟았다. 어렵게 찍은 사진을 현상하여 한 장을 겨우 건졌다.

곧바로 대구에서 상경하여 운전기에 걸었으나 가족들의 요구로 서민호 옥중사진은 始刷紙 3장만 기록으로 남긴 채 鉛版에서 끊어낸 뒤 신문을 찍었다. 그 사진은 그 해 12월 이명동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서 의원은 1960년 4·19혁명으로 석방되었으며, 8년간을 복역했다.

운명처럼 다가온 ‘사진쟁이’의 길

이명동 회우는 가야산 언저리 경북 성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격동의 시대 보도사진 개척한 ‘포토 저널리스트’ “물질 관심두면 人生은 알팍해진다” 超脫의 老後

성주 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다니던 무렵, 학교를 오가는 길목인 대구에서 오카모도라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메라 가게가 운명처럼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사진관의 대형 사진기만 보았던 그에게 소형 카메라는 신비의 마술상자 같았다. 하루 품삯 30전을 받는 어머니를 졸라 1원짜리 카메라를 손에 넣었으나 갈증만 느꼈다. 선반 위에 진열해 놓은 12원짜리 고급 카메라에 눈이 번쩍 띄었으나 언감생심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살 돈이라며 할머니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보았다.

그 날 밤 곤히 잠든 할머니의 주머니를 뒤졌다. 15원이 창호지에 싸여 있었다. 이미 카메라에 낫이 나간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12원을 몰래 빼낸 다음날 카메라 가게로 달려가 환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 카메라를 손에 넣었다. ‘간 큰 소년’의 호기심과 집념이 사진 외길로 들어선 계기가 된 일화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자리도 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웃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갔다. 6년 동안 술한 역경을 헤치고 일본 법정대학교 부속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사진 기술도 배웠다. 1942년 귀국한 그는 경북 산림국 성주출장소에 근무하며 기록사진을 찍어 거리 전시를 하는 등 보도사진가로서의 기질을 발휘했다.

사진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버리지 못한 그는 8·15광복 이듬해 상경하여 대한예술사진연구회에 입회하여 꾸준하게 사진을 발표하면서 성균관대 전문부 정치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했다. 6·25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제 7사단 군속을 자원하여 최전

방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기록했다. 당시 종군기자 대부분은 이명동이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종전 후 두 개의 무공훈장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전쟁이 끝나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953년 중앙일보 사진부 기자로 일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3년 뒤 동아일보 사진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부장과 부패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고발하는 보도사진들을 남겼다. 이 회우는 “그 시기가 나에게 사진기자의 정의감과 역사의식을 깨우쳐 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회고한다.

지칠 줄 모르는 질풍노도의 삶

동아일보 사진부장과 출판영업국장을 끝으로 1979년 59세로 언론현장에서 물러나기까지 포토저널리스트의 근성과 사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왔다. 1963년부터 30여년간 대학 강단에서 보도사진론을 강의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사진기자라면 투철한 기자정신

술적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포토저널리스트가 되려면 포토그래퍼와 저널리스트에 아티스트의 자질을 고루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분야도 國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뿔뿔히 댈 동안 끈질기게 했으나 당국의 반응은 없었다. 오기가 발동한 그는 “국전에서 사진을 수용하지 않으면 民展으로 맞서보겠다”는 각오로 1963년 동아일보 주최 ‘동아 사진콘테스트’를 창설하는 산파역을 맡았다. 3년 뒤 ‘동아 국제사진살롱’도 창설했다. 1964년 국전에 사진분야가 신설되어 그 꿈은 이루어졌다.

포토저널리스트는 정년이 없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사진에 대한 집념은 식을 줄 몰랐다. 사진평론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그는 칠순에 접어든 1989년 사진전문지(월간 사진예술)를 창간하여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이명동 원로 회우가 저서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를 펼쳐 들고 “살아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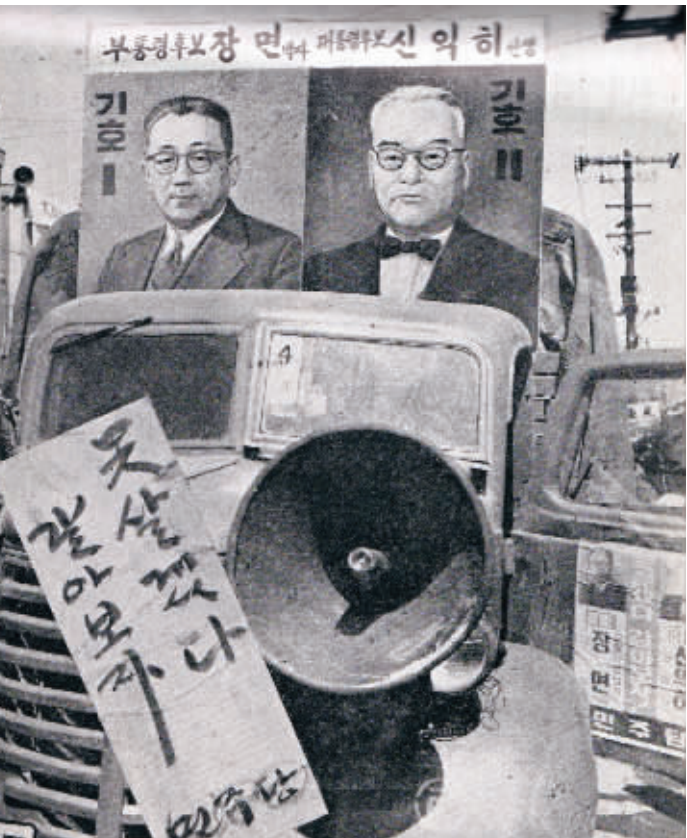
1956년에 찍은 이명동 회우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살아오면서’는 구호를

칠순에 접어든 1989년 사진전문지(월간 사진예술)를 창간하여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사진기자



고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6년에 찍은 이 명동 회우의 보도사진. 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씨, 부통령 후보로 장면 씨를 내세우고 '못살겠다 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공보처 우수잡지로 선정되고, 해외통신원을 둘 정도로 궤도에 올려놓았다.

관심을 두면 인생이 얇아진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덧붙인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12년 간 애착을 가지고 키

'세계평화지수' 보고서 발간

★ 김진현(세계 평화포럼 이사장) 회우 = 세계 평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2008년 세계 평화지수〉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세계 평화지수 작업은 세계 평화의 수준을 양적지표로 나타냄으로써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평화수준 고양에 대한 전 지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서문학'에 수필게재

★ 남재희(전 노동부 장관) 회우 = 서울 강서구의 강서문인협회가 발행하는 〈강서문학〉에 특집으로 "그 청기조칸의 몽골"이란 수필을 게재했다.

東友會 송년회 개최

★ 박경석(동아일보 東友會 회장) 회우 = 지난 12월 9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동아일보 퇴직 사우들의 모임인 東友會 송년회를 개최.

지방신문협의회 간담회

★ 박기정(전남일보 사장) 회우 =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화성 그린피아 관광호텔에서 전국 지방신문협의회 2008년도 제 5차

사장단 간담회를 추재하고 '지방신문사의 뉴스 콘텐츠 교류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송년회

★ 송두빈(헤럴드미디어 사우회장) 회우 = 지난 12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송년회를 개최.

과학기자협회지에 기고

★ 이광영(과학평론가) 회우 = 지난 11월 28일 발간된 과학기자협회지 제 24호에 '위기에 직면한 한국 과학기술 - 정부 못지않게 언론도 책임있다'는 과학시론을 기고.

시화집 출판기념회

★ 이용호(시인) 회우 = 지난 11월 3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최근 출간한 시화집 〈노랑꽃 개나리〉출판기념회를 열었다.

朝友會 회장으로 추대

★ 인보길 회우 = 지난 12월 17일 열린 조선일보 전직사우모임인 조우회(朝友會) '2008 송년의 밤' 행사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인 회우는 조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편집국장을 거쳐 디

지털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상의 자문위원 위촉

★ 최병요(분회 논설위원) 회우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一耕언론상 시상

★ 윤임술(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 회우 = 지난 12월 17일 1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一耕言論賞을 시상했다. 2008년도 수상자는 대상에 매일신문 박병선 등 5명, 장려상에 국제신문 박창희 등 2명, 춘천문화방송 황병훈 PD 등이다.

각계 초청 송년음악회

★ 고학용(한국언론재단이사장) 회우 = 지난 12월 26일 오후 6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각계 인사 200여명을 초청,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9월회 송년모임

★ 박문송(9월회 총무) 회우 = 지난 12월 12일 孔大植, 金潤德, 朴永植, 朴晉緒, 柳承澤, 韓承燮 회우 등을 불러 명동 묵호횃집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본회 회우 8명 소장사진제공

언론60년 사진전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 언론인 60년 특별사진전' (2008.12.15~20)에 본회 회우 이혜복, 박명근, 임학수, 이형균, 김 화, 김춘빈, 김한길, 박용운씨 등이 제공한 사진이 전시되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고학용)은 이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조선일보
ireader
Information·Intelligence·Innovation

대한민국 최초의 스크린신문, 아이리더

아이리더 특징

- 조선일보의 고급정보만을 엄선해서 제공
- 편리한 스크랩, 메모 기능을 통해 정보활용기능을 강화
- 7일치 신문이 자동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열독 가능

<http://ireader.chosun.com>



이용안내

회원가입 및 무료 이용 서비스

<http://ireader.chosun.com> 에서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누구나 30일간 무료 체험 가능

조선일보 국내 독자

조선일보 국내 독자로 확인되면 구독 기간 동안
아이리더 무료.
▶아이리더 회원가입 → 독자확인 → 무료이용

해외 독자 및 조선일보 비독자

무료체험 후 계속 이용을 원하실 경우
1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결제 후
이용 가능



土曜三樂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J고교 동기 산악회의 구호다. 매주 토요일이면 제각각 차편을 이용, 모악산(母岳山)을 오르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중인리 시내버스 종점 ‘시골집’에 모인다.

해발 800m인 모악산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이 빼어난 명산이다.

이 산은 전북도민의 생업과 문화·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연자원중의 하나로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호남평야의 젖줄 구실을 하는 구이(九耳)·금평(金坪)·안덕(安德)저수지 등의 물이 모두 이 곳 모악산에서 시작된다.

모악산에는 금산사(金山寺), 귀신사(歸信寺), 대원사(大院寺), 수왕사(水王寺), 금곡사(金谷寺) 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있다. 특히 금산사는 조계종 17교구 본사중의 하나로 백제 법왕 원년(599년)에 창건되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인 762년에서 766년 사이에 진표율사(眞表律師)에 의해 중창되어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미륵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륵전은 국보 제 62호이며 육각 다층 석탑 등 10여점의 보물이 있다.

각설하고, 토요일의 제 1락은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그것도 중고등학교 시절의 동기동창생들이다. 졸업한지 56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모두가 산수(傘壽)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건만 학창시절의 ‘새끼들’뿐이다. 대학 총장도 없고, 도지사나 법관도 없다. 모두가 ‘이 새끼’와 ‘저 새끼’들이다. 연어가 알에서 깨어나 망망대해에서 풍파와 부딪치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살다가 생을 마칠 무렵 모천에 돌아가는 귀소본능(歸巢本能)의 그것과도 다름 없다.

시골집 주인 강 여사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10시 정각에 산행이 시작된다.

20분쯤 걸다보면 길 양편에 논밭과 과수원이 즐비하다. 봄이면 연분홍 복숭아꽃과 하얀 배꽃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다. 누가 말 했던가 ‘이백도홍춘이색(梨白桃紅春二色)’이라고.

제 2락은 산과의 만남이다.

산 어귀에 들어서면 벌써 코끝이 서늘하고 상쾌한 숲 내음에 흠뻑 취한다. 더욱이 간밤에 내린 비로 청초해진 아침 산은 풀꽃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로 모두를 반긴다.

이름 모를 산유화며, 수목들이며, 산



김한봉

- 본회 회우
- 전 대한일보 기자
- 전주문화원 이사

새들이며, 모두가 신명나는 삶을 구가하는 보금자리다. 산은 사랑을 키워 주는 도장이다. 산에 묻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은 얼마이며, 산에서 잉태한 사상(思想)과 우정은 얼마인가.

산에 오르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명제(命題)가 성

립된다.

산은 무한한 사랑을 잉태케 하는 말없는 스승이 되고 포근한 정을 안겨주는 어머니의 품이기도 하다.

산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외로울 때, 언제 찾아도 용기와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어찌보면 산은 인간의 참 모습을 비춰주는 영원한 고향이며, 끝없는 노스텔지어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고되고 역겨운 세상일지라도 산에 오르는 동안만은 혼탁한 사바세계의 번뇌를 잊을 수가 있고 인간 본연의 자아로 돌아간다.

달성사를 향해 오르다 보면 4~5월엔 진달래와 철쭉꽃의 아름다운 군락을 본다. 진달래와 철쭉은 잎과 꽃중 어느 것이 먼저 피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면 진달래이고, 이는 흔히들 ‘참꽃’이라 하며, 먹을 수 있다. 옛날 배고프던 시절 아이들의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으며, 농사철이 되기 전 아낙네들의 봄나들이에서 부쳐 먹던 화전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 또 남쪽 지방에선 진달래는 피어있는 생태에 따라 아직 덜 핀 꽃봉오리는 사춘기 소녀의 젖꼭지 색깔에 비유하여 ‘연달래’라 하고, 활짝 핀 붉은색의 진달래는 처녀

매주 토요일 친구 · 山 · 음식과의 즐거운 만남.

의 젖꼭지에 비유하여 ‘진달래’라 하며, 시들기 전의 것은 아기에게 젖을 물려 까무잡잡한 아줌마의 젖꼭지에 비유하여 ‘난달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게 다 말쟁이 말장난이거나, 글쟁이의 글장난일 게다. 또 철쭉은 꽃보다 잎이 먼저 나오고 후에 꽃이 피는데 독성이 있어 먹지 못하므로 ‘개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때 쯤이면 또 하나 빠짐없이 만나게 있다. 삐죽새다. ‘삐죽 삐죽...’ 숲속에서 삐죽새 울음소리가 애잔하게 들려온다.

산행은 계속된다.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이름 모를 산새소리, 바람소리, 한 주일동안 가슴깊이 쌓였던 풍진을



우리들 모임 — 木會

원로 언론인들의 동네 친목 모임의 효시라고나 할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老記者들의 월례 모임인 ‘一木會’는 벌써 8년째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첫 목요일 저녁에 만나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一木會는 수지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2001년

봄 언론계 퇴역 원로들이 서울에서 대거 이사를 해와 누구의 제이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웃 친목 모임이다.

회원은 처음 11명으로 시작하여 한때 22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그 동안 한 분이 작고(故 柳善佑)하고, 다섯 분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금은 16명이다.



정기정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월남특파원
- 전 마산 MBC 사장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마치 전 언론사 사장단 모임 같다는 편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임 분위기는 현역시절의 部會 플러스 동창 모임 같다면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모임은 대개 才談과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우국충정의 고담준론이 펼쳐지기도 한

다. 호프집 2차는 필수이고 酒黨들은 3차도 불사할 때가 많다. 일부 회원들은 정례 모임 외에 가까운 광고산 등산을 즐기기도 하고 바둑 애호가들은 함께 기원을 찾기도 한다. 본지는 2001년 9월 1일자에 ‘氷枝와 一木會’란 제목으로 이 모임을 소개한 적이 있고, 수원에서 발간되는 京仁일보는 같은 해 10월 5일자에 ‘현대사 증인들 한 마을에’란 제목으

龍仁수지구거주 老記者 16명 8년째 매월 흥겨운 자리 가져

현재의 회원은 趙庸中(회장·전 연합뉴스 사장), 姜漢弼(전 불교방송 사장), 金東益(전 중앙일보 사장), 金斗謙(전 중앙일보 부국장), 金文鎭(전 서울신문 전무), 金永凡(전 대한일보·전 서울플라자호텔 사장), 盧哲容(전 경향신문 사장), 宋斗彬(전 동화통신 편집국장), 吳根泳(전 연합뉴스 상무), 尹壬述(전 부산일보 사장), 李平洙(전 서울신문 사장), 李廷培(전 중앙일보 편집부장), 曹圭河(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鄭基政(전 문화방송 감사), 崔鍾哲(전 SBS 전무) 등이다.

로 一木會를 소개하는 박스 기사를 실었다. 월간 <新東亞>는 2002년 9월호에 역시 一木會를 소개하는 화보 페이지를 내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은퇴한 老記者들의 단순한 동네 모임이 이처럼 주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모임의 순수성과 ‘아름다운 老後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의 故辭에 “退一步 天高地闊 讓三分 心平氣和”이란 말이 있다.

一木會 회원들의 마음 가짐을 여기에 비유한다면 필자의 지나친 과장일까? ㉠

는 좋은 안주와 술은 서로 짝이 되어 각 1명은 기본이고 병반쯤 마셔야 양이 찬단다. 주량이 놀라울 정도다.

술자리는 언제나 음담패설이 있기 마련이다. 상 앞에 둘러앉은 늙은이들은 옆방에 손님이 있건 없건 떠들어 댄다. 이렇게 해서 배꼽이 튀어 나오도록 몽땅 웃고 술이 거나한 일행은 시내버스에 올라 동창회관을 향한다. 도중하차를 엄중히 감시하여 동창회관에 이른 친구들은 ‘마작팀’ ‘고스톱 팀’ ‘바둑 팀’ 등으로 나뉘어 소주값 모으기를 시작한다. 모아진 세금은 ‘털보식당(주점)’에서 소주값으로 납부한다. 흥이 나면 노래방까지 어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은 저물고, 다음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12월 31일로 모악산 오르기 264회가 됐다. ㉡

무역은 희망입니다

수출 3천억불 달성 2년 만에 4천억불!

무역과 함께 한 건국 60년-. 순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수출 5천억 달러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갑니다.
무역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회우들이 펴낸 新刊

고두현 회우 ‘재미있는 육상경기...’

고두현 회우가 11번째 저서인 〈재미있는 육상경기 이야기〉를 펴냈다.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육상 붐에 불을 붙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집필한 이 책은 동서양과 인종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패어플레이를 펼친 사람들, 각양각색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각자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 최고가 된 스포츠 영웅들의 가슴쿵쾅한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육상경기가 매우 재미있는 스포츠인데도 어쩐 일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육상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

까지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에서는 “이 책을 단순한 육상경기 이야기가 아니라 스포츠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인문 교양서” “이 책을 통해 육상경기가 얼마나 매력있는 운동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자칫 딱딱하기 쉬운 육상경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썼으며 편안한 이미지의 일러스트가 조화롭게 어울려 이해가 더 쉽다”고 평하고 있다.

〈260쪽 값 8,000원 에드엑〉



최영정 회우 喜壽기념 ‘韓流골프’

40여년 동안 골프기사와 칼럼을 취재하고 집필해온 최영정 회우가 ‘취재 40년, 喜壽 기념 칼럼 모음 〈韓流골프, Why so, why not〉’을 펴냈다. 지은 이는 머릿말에서 “조금은 무거운 그러나 맵고 짭짤한 읽을거리를 교재(教材)타입 모음으로 엮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이름〈韓流골프, why so, why not〉는 ‘한류골프, 뭐가 그렇고 뭐가 그래서 안될 것 있냐?’라는 뜻으로 선진 골프 대국의 골프와는 다른 우리만의 틀리고 다른 골프를 두고 그것들이 ‘왜 그렇고 그래서 안될 게 뭐냐’고 따진다.

골프·골프장·클럽·규칙역사·단체·플레이성(性) 및 미디어 등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우리의 ‘틀리고 다른’ 골프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

은 것이다. 우리의 멤버십 코스가 재벌의 접대용, 과시용이 아니면 “골프를 돈으로 하자”는 부동산 투기 업자의 돈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같은 사(似)이면서 아니 비(非)인 사이비(似而非) 골프의 폭로이자 투정의 칼럼집”이라면서 “만천하의 지적(知的) 골프 꾸러기와 함께 다지는 격문이자 연판장 구실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343쪽 비매품 에버그린〉



잊지 못할 사람들

AP本社기자 申化鳳씨의 추억

申化鳳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長津. 해방 후 소련군이 진주하자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미 24군단이 인천으로 상륙, 서울로 들어와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을 때 신씨는 미군사령부로 정해진 반도호텔(지금 롯데호텔 자리) 앞에 서있었다.

한 군인 통역을 지프차 뒤에 태운 한 미군 대위가 이치보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성난 어조로 고함쳤다.

신씨는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말하니 조선호텔이 어디냐고 물었다. 나도 서울 온지 얼마 안되어 지리를 잘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신씨의 영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미군 대위는 타고 있던 통역을 내리게 하고 대신 신씨를 태웠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100m 가량 간 왼쪽에 갈색 벽돌의 옛 조선호텔이 나타났다. 호텔은 미 24군단장 하지 중장과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 숙소로 되어있었다.

신씨는 지하 주방으로 안내되어 요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군과 일본인 주방장 사이에 통역을 했다. 신씨는 일본 중앙대학 4학년 졸업반, 영문학을 전공했다.

미군식사관 등으로부터 통역을 잘 한다는 칭찬을 들었고 그 날부터 그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나 호텔근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하지 중장은 참모들에게 Shinn이야말로 미국 유학을 해야 할 젊은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하며 615달러를 모아 그에게 전달했다. 당시로서는 꽤 많은 돈이었다.

신씨는 헤이스팅대학 졸업반에 편입됐고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다. 졸 곧 장학금을 받았다. (Regents Fellowship)

귀국한 다음해 AP 서울 지국장 무어(Moore)의 추천에 의해 본사 발령으로 AP기자가 됐다. 이니셜은 ‘Bill Shinn’. 그로부터 그의 화려한 외신기자 생활은 시작됐다.

6·25 동란이 일어나고 평양이 함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그 비행기에 동승하는 행운도 얻었다.

평북 順天에 미군 공수부대 3000병력이 기습 낙하할 때 목숨을 걸고 함께 뛰어 내리기도 했다. 인천 상륙작전 특종으로 AP 본사로부터 특별 상여금도 받았다. AP 서울지국의 동료들은

Bill shinn이 미국인이었다면 폴리처 상을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및 도쿄특파원
- 종군기자 동우회 부회장

성품이 온화할 뿐더러 사흘이 멀다 하고 고급 점심식사를 베풀었다.

‘Bill Shinn’ 필명으로 수많은 특종 호텔경영실패 해외떠돌다 他界

받았을 것이고 ‘Scoop(특종) Shinn’이라고 불렸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포로수용소장 도드 준장이 포로들에게 포로가 되는 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이나 공보처장을 제의했으나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파고다공원 옆에 5층 관광호텔을 지었다. 부지는 Bill Shinn의 것이었지만 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달려 은행대출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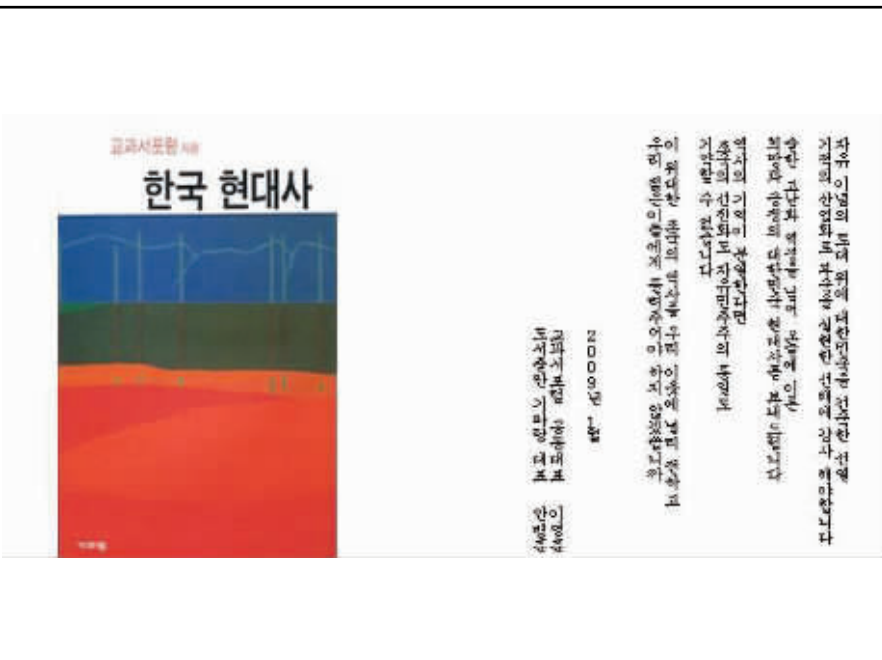
당시 은행들은 대출금의 20%를 떼어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한납하는 검은 이면이 있었다. Shinn은 이를 끝내 거부하고 사채를 끌어다 썼다. 천신만고 끝에 호텔을 완공, 개업했으나 끝내는 사채업자와 건설업자에게 넘어갔다.

어느날 여름, 서울신문 앞 공터에 지어진 신문회관 1층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Bill shinn을 보았다. 1층은 신문열람과 바둑판이 몇개 놓여 있었고, 2층은 기자회견장이었다.

三伏에 두꺼운 겨울바지를 입고 연신 땀을 흘리고 있었다. 민망하여 차마 인사할 수가 없었다. 몇해가 지난 뒤 내가

신씨의 모처럼의 방문을 눈치챈 특파원들은 모두가 자리를 떴다.

신씨는 시사통신 도쿄 지국장으로서 와있으면서 혼자 주간 영자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쿄 외신기자클럽의 부회장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으나 때로는 미흡했던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무렵에는 이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 만큼 어지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새로운 정권마다 수많은 말을 쏟아 놓지만 그 속에는 진실과 알맹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씨가 되고, 생각은 운명이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은 진심이 아니었지만, 무심코 던진 농담이 현

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言靈效果라고 합니다. 말은 씨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뱉을 때는 참으로 자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또는 학생에게 조그마한 약점을 잡아 ‘잘 못 한다’느니, ‘왜 너는 그 모양이냐’느니 하는 부모와 선생의 한마디로 어린양의 장래를 그르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허로 하는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말이어야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입니다. 마음의 알맹이를 쓰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음 수련을 하는 수행자 가운데는 스승의 ‘말씀’ 한마디로 깨친 사람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大韓言論人會 상임이사를 물러나며



김 건 이

· 본회 전 상임이사
· 전 세계일보 국장 겸 수석논설위원

많습니다.

말장난과 말씀은 天壤之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면 말장난이 되고 맙니다. 말에는 향기가 배어 있어야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말재주가 좋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말씀은 비록 짧은 내용이라도

듣는 이의 가슴 속을 파고 듭니다. 성인들의 사상을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하늘마음의 알맹이가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맑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날마다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욕지거리를 하거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많이 쓴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어둡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에는 暗示性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 말이 암시한대로 일이 벌어 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운명이다’라는 격언이 생겨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운명을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운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은 곧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한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는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 자체에 창조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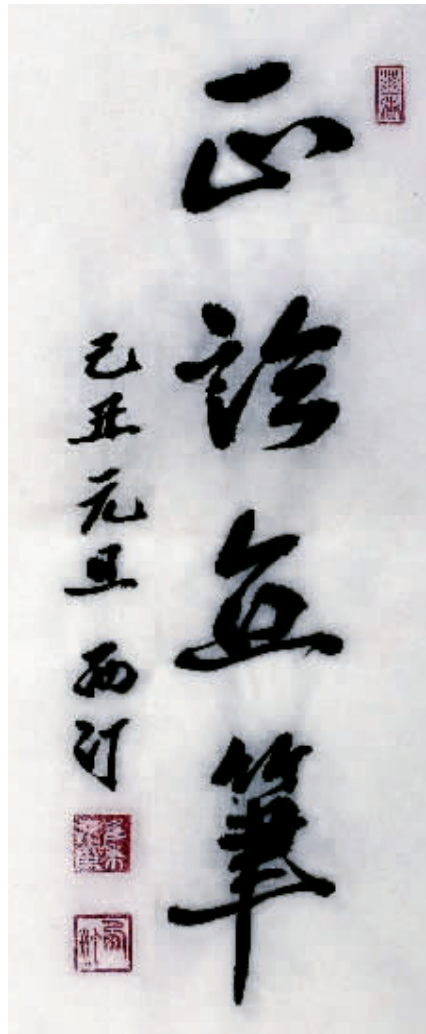
‘우주 신’은 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속으로 하는 혼잣말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은 말 속에도 존재합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격려의 말씀’으로 인해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었음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己丑年새해 휘호



‘言論一路’의 己丑年 휘호를 보내주신 南德韓碩奉 先生은 현재 대한서예진흥회 이사로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는 한편 인사동과 봉천동에 서예실을 열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正論直筆’이란 新年 휘호는 본회 회우 崔秉堯 선생의 작품으로 4살 때부터 서예를 익혔다고 한다.

金健二 상임이사 辭任 새 이사에 吳健煥 회우

金健二 상임이사가 지난 12월 19일자로 사임했다. 金 이사는 지난 3년간 대한인론학회 상임이사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겠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 후임 상임이사에는 KBS 파리 총국장, KBS 스포츠국장, 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吳健煥 회우가 맡기로 했다.

백내장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

이사회결의... 自家長期치료는 포함

본회는 지난 달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 118차 이사회를 열고 2009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정하고 신입회원 15명의 입회를 승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후생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응칠)는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요청한 A회우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통상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의료비 지원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 치료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한편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와 의료비 지출 근거가 명확하고, 회우 3명 이상의 확인이 있을 경우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립선검사 A급 29% B급59%

본회 회우 결과 통보

사단법인 한국전립선관리협회는 지난 12월 6일 본회 회우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립선 검진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종합 판정 결과 현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A급)은 29%인 47명이었고,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숫자(B급)는 59%인 96명으로 나타났다.

또 적극적인 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한 사람(C급)은 2%인 4명, 전립선암에 대한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회우(D급)는 10%인 17명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사 결과 연령이 낮은 사람 중에서도 D급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기금내신회우

김경중(金景中)=20만원

회비 내신회우

· 2008년도

김세경 김운곤 김은구 동문성 박영식 안병훈 이한수 장순재 장준식 전남석 정병교 정성진 정운중 정희준 조남조 조동표 한상규

· 2009년도

강명수 강용식 김기원 김윤석 고두현 권혁만 김대환 김성배 김영호 김운곤 김재근 김 화 김휴선 도준호 민병문 박광춘 박명근 박승채 申東濤 심재복 여영무 오건환 오관룡 우경식 이배국 이병천 이성춘 이시현 이재원 이정윤 이종기 이종완 이종윤 이종준 이 철 이한수 이흥기 장석훈 장준식 전남석 정병교 조봉균 주종환 최재욱 최종철 한동희 한상규 한영도 한태열 홍성혁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유무정 회우=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34, 푸른마을 402동 903호 (412-510)
· 정성진 회우=서울 은평구 진관동 19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12동 201호

(122-200)
· 나용경 회우=010-2691-0084
· 박영식 회우=010-3370-9338
· 조창화 회우=010-8290-3733

다 함께 웃는 대한민국 건설, 주·토공 통합공사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을 키워갈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주·토공 통합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다 함께 웃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인하

택지가격 인하와
개발기간 단축 등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앞당기겠습니다.

효율경영 달성

양 공사의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주택·도시건설 및 국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주택·도시개발

세계최고수준의 테마형 도시건설 등
미래지향적 주택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힘으로 지금,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도

지구온난화를 끝낼 수도, 인류의 가난을 끝낼 수도 없지만

4교시만 끝나면 홀로 교실을 빠져나오는

선재의 배고픈 점심시간은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1004+ **SEND

사람을 향합니다

SK텔레콤의 [1004♥사랑나눔]은 모바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1004+SEND / 통화료 무료)

SK '행복나눔 계절'이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8년도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SK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행복나눔 계절'이 지금 이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행복바자회, 행복김치 담그기, 연탄 및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과 따뜻한 행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SK telecom